

가인과 아벨: 죄가 문 앞에 엮드릴 때 (창 4:1-12)**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찬송 하기**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본문 읽기** 창세기 4:1-12

오늘은 ‘인류 최초의 살인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죄의 파괴적인 습성이 누구에게나 바로 문 앞에 맹수처럼 도사릴 수 있다는 걸 보여 줍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 죄가 문 앞에 엮드릴 때 : 자기중심성과 잘못된 예배

먼저, 자기중심성과 잘못된 예배에서 죄가 자라나 맹수처럼 문 앞에 도사립니다. 1절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하와의 자기중심성(“내가…했다”)이 드러납니다. 하와는 가인을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키우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키웠고 크게 실망합니다.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벨이라 짓는데(2절). 아벨의 뜻은 ‘공기, 바람, 숨’이고, 전도서에서 ‘허무’를 뜻하는 ‘헤벨’과 유사합니다. 아벨에 대해 전혀 기대를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은 의인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내가’라는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십니다. 아벨은 최상의 것을 드림으로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했지만, 가인은 그런 진심과 믿음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히 11:4).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거절하시자 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의식은 없고 잘못된 권리 의식, 자기중심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잘못된 예배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엄청난 파괴적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기심에서 파생된 죄가 우리 문 앞에 맹수처럼 엮드립니다.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파괴력을 제어할 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을 가장 합당하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는 복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2. 죄가 우리를 삼킬 때 : 잘못된 대응과 그 결과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6절). 하나님의 질문에는 가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말씀합니다.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어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느냐’(7절).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나 아벨이나 외부에 있지 않고 가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게 삼켜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지금 죄가 맹수처럼 문 앞에 웅크려 있으니 그 죄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자기 마음의 분노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입니다.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서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 내면에 웅크린 죄라는 괴물과 싸우지 않고, 분노의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9절).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동생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책임 의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증인을 소환하십니다(10절).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제 어떤 해명의 기회도 없이, 저주가 선고됩니다(11-12절).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아무리 밭을 경작해도 땅이 응답하지 않는 저주입니다. 그는 이제 경작지인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의 죄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1) 제일 먼저 자기 연민과 분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3) 셋째,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회개(궤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히 12:24).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죄가 문 앞에 도사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죄의 실체와 파괴력을 알고,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삼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1-2절)

이로 보건대, 자녀 양육에서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4절, 히 11:4)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3.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까?(6-7절, 9a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4.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경고에 어떻게 반응합니까?(9b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10-11절)

9.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지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주기도문